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은 무엇인가?

답 11: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 하시는 일이다.

성경적 근거: 시편 145:17, 104:24, 103:19; 히브리서 1:3; 마태복음 10:29-30; 느헤미야 9:6; 이사야 28:29

질문 1: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했나?

질문 2: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분리할수 없는가?

질문 3: 하나님은 무엇으로 섭리하시는 일을 하는가?

질문 4: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무엇인가?

질문 5: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질문 6: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무엇인가?

질문 7: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인가?

질문 8: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시며 치리하는가?

질문 9: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 있는가?

설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미 문답 8에서 정리한바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쉬지 않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며 (2) 모든 창조물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3) 모든 창조물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서가 말하는 것과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 소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는 일과 치리하시는 일로 정리했다. 위의 정리는 그루뎀 교수의 정의 인데 소요리문답의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놓은 것이다. 그루뎀 교수의 2,3 번은 소요리문답의 치리하는 일로 보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 무엇을 보존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의 창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는 떼어놓을수 없다. 즉,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이 두가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가 있기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창조와 섭리로 인해 법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안에 살아야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주권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도 섭리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거룩함, 그의 지혜, 그의 권능으로 이뤄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죄와 나눠져계시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절대적으로

위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무관하실뿐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가운데 모든 의도하신 바를 이룰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고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심을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8:28)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쉼을 얻지 못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밤과 낮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아침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편히 잠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히 1:3)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6).

만약,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로 우주만물을 다스리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없다. 법칙도 순서도 질서도 없으신 분을 도무지 어떻게 섭길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일, 즉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함께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 (시 23:4) 처리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을 한치의 잘못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섭리를 시편 91 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7)

네가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으로 섭리하심을 알아보자.

첫째,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45; 시편 104:14; 욥기 37:10,12)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되는 일은 없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다니엘 4:25, 2:21; 사도행전 17:26) 우리 눈에는 온 세계가 난리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것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셋째, 하나님은 한사람 한사람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사무엘상 2:6-8) 참새 한마리도, 우리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잠언 16:1; 빌립보서 2:13; 시편 76:10)

이 네가지를 볼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에서 큰일까지 모두 적용된다.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그의 일이다. 그의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일은 결코 그에게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의 하나님되심이 바로 이런 점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 하나님안에서의 평강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통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통치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로 죄를 지었던 것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것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것일까?